

2. 한국인의 근로 시간

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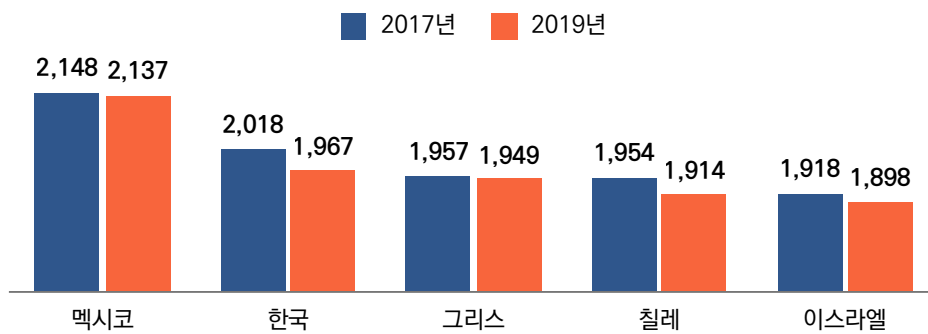
한국,

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근로 시간이 긴 나라!

- 올 7월 1일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.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한 후 2019년 연 평균 근로 시간은 1,967시간으로 2017년에 비해 51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그러나 2019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1,96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여전히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나라이다.

[그림] OECD 연 평균 근로 시간 상위 5개국 현황(2017 vs 2019)

(시간)



*자료 출처 : 한국일보, 2021.06.28., '저녁 있는 삶 내달 완성... 돈 없는 저녁 마지막 퍼즐은 남았다', <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1062309220002966>

**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시기 : 2018년 7월 1일 사업장 규모 300명 이상, 2020년 1월 1일 50인 이상, 2021년 7월 1일 5인 이상

● 2020년 코로나 기간 중, 근로 시간 감소율보다 임금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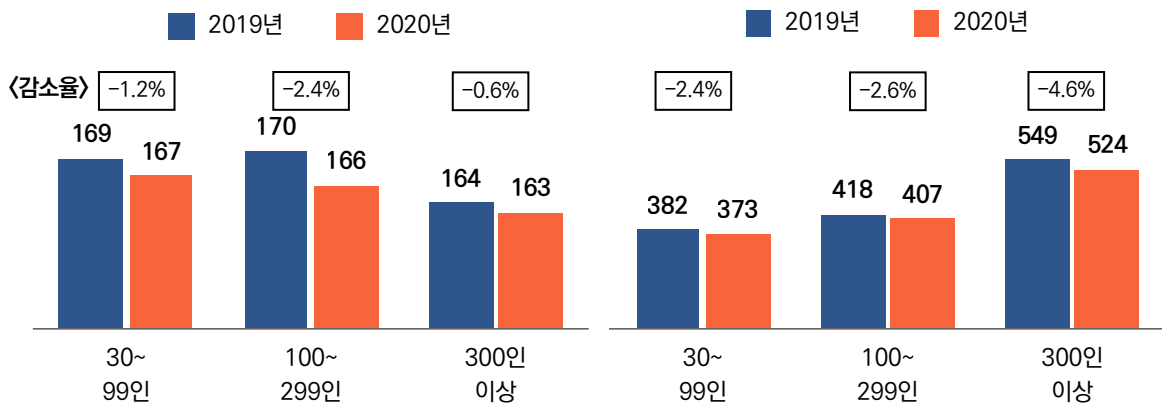
- 주당 근로 시간을 코로나 이전(2019년)과 이후(2020년)로 구분하여 살펴보면,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근무 시간과 임금이 감소했는데, 근무 시간 감소율보다는 임금 감소율이 더 큰 컸다.
-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근로 시간은 적고 임금은 더 많이 받고 있다.

[그림] 사업장 규모별 월평균 근로 시간 (2020년, 고용노동부)

(시간)

[그림] 사업장 규모별 월평균 임금 (2020년, 고용노동부)

(만 원)



*자료 출처 : 한국일보, 2021.06.28., '저녁 있는 삶 내달 완성... 돈 없는 저녁 마지막 퍼즐은 남았다', <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1062309220002966>

**본 자료는 전체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30인 미만의 기업은 반영되지 않음에 유의할 것